

토정비결

1990년 3월 27일 | 양력 | 여성

토정수

3657

연운 (한 해의 운세)

올해는 마치 봄날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새로운 기운이 충만한 해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덕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니, 주변 사람들과의 화합을 중시하면 더욱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용히 내실을 다지고,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한 해 내내 길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 ##

1월

새해 첫 달,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듯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 좋은 기운이 따릅니다.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고 어른을 공경하면 뜻밖의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시기이니, 차분히 한 해의 청사진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

2월

귀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 마음이 즐거운 달입니다. 오랜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전해지니,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연락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큰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

3월

생일이 있는 달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하기에 좋으며, 배움에 뜻을 두면 지혜가 더해집니다. 건강에도 신경 쓰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낼 기운을 얻게 됩니다. ##

4월

봄꽃이 만발하듯 재물운이 피어나는 달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거나 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징조이니, 최선을 다해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행동하면, 복이 오래 머물 것입니다. ##

5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시기입니다. 남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면 그 덕이 자신에게 돌아오니, 베푸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행이나 외출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니,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를 다녀오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

6월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좋은 소식이 들려올 달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화목을 도모하면, 집안에 복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재물도 조금씩 모이니 알뜰하게 저축하면 든든한 밑천이 될 것입니다. ##

7월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때이니 건강관리에 유의하되, 마음은 시원하게 가지십시오. 일이 다소 바빠질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좋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윗사람의 조언을 잘 따르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

8월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는 달입니다. 업무나 사업에서 성과가 나타나니,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 더 큰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이 더 큰 복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

9월

가을 수확의 기쁨처럼 마음이 풍요로운 시기입니다. 금전운이 좋아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 있으니,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데, 진심으로 대하면 오래가는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

10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달입니다. 큰 변화보다는 현재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 차분히 일상에 충실하십시오. 문서나 계약과 관련된 일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

11월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는 달입니다. 평소 쌓아온 인덕이 빛을 발하니,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투자나 저축을 시작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니, 재물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뿌듯함을 느끼는 달입니다. 그동안의 노고가 인정받고 주변에서 칭찬이 이어지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다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하면, 새해에도 좋은 운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토정 이지함 선생 가르침:**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나니, 항상 선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베푸는 삶을 살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느니라."

토정비결은 조선시대 토정 이지함 선생이 만든 운세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